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집중'

도교육청, '발명·메이커교육' 역량 강화 추진
담당 교사 간 멘토·멘티제 운영·학습법 공유 등

도교육청이 발명·메이커교육 전문성을 키우고 의사 소통과 배움의 장을 제공해 교수·학습법을 공유하기 위한 자율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 메이커교육 확산과 발명교육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6개 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사 간 멘토·멘티제를 운영해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발명·메이커교육 전문성을 키우고 의사소통과 배움의 장을 제공해 교수·학습법을 공유하기 위한 자율연수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에는 김제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에서 교사들이 디자인을 직접 도안해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한 오토마타 만들기' 연수가 운영됐으며, 12월까지 무주, 고창, 남원, 군산 등 지역의 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를 중심으로 자율연수가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발명·메이커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교육과정 수립 ▲미래창작공방 효율적 구축과 최신 기자재 활용방법 ▲시설·기자재 구비, 노후화 및 안전상태 점검 ▲발명·메이커교육 운영 결과 평가 및 효율적 예산 집행 협의 등으로 진행된다.

박선영 교사(전주덕진발명교육센터 미래창작공방)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특수성이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발표와 나눔을 통해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익현 교사(김제발명교육센터 미래창작공방)는 "전라북도교육청에 적합한 메이커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을 제대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코딩, 메이커교육, 컨텐츠 제작 등 아이들의 흥미와 공감능력을 키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우진 교사(전주완산발명교육센터 미래창작공방)는 "아이들이 초보, 준프로, 프로 메이커 단계별 조작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키우고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적 사고력, 심미적 감성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창작공방은 항상 열려 있으며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로 발명·메이커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사소통과 배움의 장을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발명·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작공방 프로그램은 3D프린터, 드론 메이커교육 등 현장에서 실제 활용도가 높은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농식품 수출 개척 '맞손'

전북대-고창군, GTEP사업단 학생 참여 수출 지원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고창군 농식품 특화지원 및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매 촉진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5일 오후 4시 전북대 본부 4층 총장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유기상 군수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창군내 대표적인 농식품 제조회사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회사 내에 무역전담 사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GTEP사업단의 수출 지원은 이들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북대의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고창 관내 농식품 업체에 대한 수출 업무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수출계약 등 실적 달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동원 총장은 "우리 GTEP 사업단은 10여년 동안 지역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해 오며 실제 수출 계약 등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학생들의 전문적인 활동이 고창군 농식품 제품에 대한 실제 수출로 이어지고, 더불어 무역 전문가로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호 GTEP사업단장(무역학과 교수)은 "이번에 협력하게 된 고창군내 중소기업들은 해외 수출에 있어서 초보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밀착 지원을 통해 수출 애로 해소와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은 무역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전국 20여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은성기자

도교육청, 시설분야 담당자 전문성·청렴도 강화 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시설분야 담당자의 전문성과 청렴도를 강화한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술직 공무원의 개인역량을 강화해 학교시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관련해 시설분야에서 전국 상위권을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설행정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직무교육은 5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학교포함) 등 기술직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부교육감 특강 ▲시설 관련 사항 전달 및 안내와 건설안전정책 설명 ▲시설공사 집행실적 사항 ▲청렴도 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 방안(청렴교육)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분야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교육시설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설분야 기술직 공무원의 청렴도 지수를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도교육청,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연수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도내 14개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며 '2019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무주·임실·군산·전주·김제지역은 연수를 마쳤고, 6월에는 지난 3일 완주를 시작으로 장수(10일), 순창(11일),진안(13일), 익산(17일), 고창(18일), 부안(24일), 정읍(25일)으로 이어진다.

특히 지난해에는 2~3개 시군 연합으로 진행했던 연수를 14개 지역청별 연수로 변경하고, 연수대상도 교권보호책임관 뿐만 아니라 희망 교사로까지 확대했다.

연수는 이나연(법무법인 공간)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과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대응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 도교육청 초·중등 담당 장학사들이 올해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계획,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해 안내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교원상처치유 지원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의 재발방지 상담 지원 ▲기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 운영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예방 중심의 연수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상호존중 기반의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통해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인재양성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5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은 반도체, 자동차, 우주항공, 디스플레이, 정밀가공 등에 필요한 공구 제조 전문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화다이아몬드는 전주비전대에 매년 2명씩 취업을 약정하고 ▲이화다이아몬드공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전주비전대학교 학생들의 현장 실무교육 협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공동연구 및 공동사업 수행 등 산학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희 취업지원처장은 "이번 취업약정 협약을 통해 이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충실히 준비하고 실천해 학생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비전대학은 현재 기업과 맞춤형 주문식 협약을 통해 하림특별반, 삼성전자특별반 등 졸업 후 취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영체, 방과후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 수료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원장 김숙, 이하 전주영체)가 지난 4월 1일부터 주 4일(1일 90분씩) 간 운영한 1기 방과후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이 6월 5일을 끝으로 10주간의 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3월에 희망 학생(5~6학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거쳐 70명을 선발했고, 수준별 4개 반으로 편성해 진행했다.

전주영체는 우수한 원어민 보조교사 8명과 영어에 능통한 초등 교원 5명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영어체험학습전문기관이다.

강의는 Sweet Midas, Don't Kill Spiders, Black Polar Bears 등 일상적 소재를 대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영어의 4대 영역 능력 향상을 목표로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2일 주중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수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교수법, 교재 선택, 교육 내용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점도 전주영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전주영체 관계자는 "사교육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부담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으로 일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오는 2학기에도 방과후 원어민 프로그램은 계속 개설되고,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2주 정도의 방학캠프도 운영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할로윈 데이(10월31일)에 원어민 보조 교사들이 직접 다양한 복장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서양 문화 체험을 하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은성 기자